

패기 있는 도전... 아름다운 미래... '네 끼를 펼쳐라'

내달 12일 전북대에서 대한민국청소년동아리경진 전국대회 개최

'패기 있는 도전, 아름다운 미래 네 끼를 펼쳐라' 라는 슬로건으로 '제16회 대한민국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를 11월 12일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전북대학교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게 된다.

이번 대회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동아리 총 500여개 팀, 10,000여명이 참가신청을 하여 예선서류심사를 거쳐 통과한 350여개의 다양한 청소년동아리가 전북대학교캠퍼스에서 자신들이 가진 끼와 기량을 마음껏 펼치게 된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로서 교육부 여성가족부 전국 시도 광역지자체 및 교육청이 후원하고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이 주관하는 가운데 전국의 청소년동아리지도자 및 청소년동아리 대표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청소년의 청소년에 의한 축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에 의한 수준 높은 대회로 진행된다.

경연분야는 음악(합창, 중창, 악기연주, 오케스트라, 랩 등), 그룹사운드, 밴

드(스포르츠, 응원댄스, 힙합댄스, 방송댄스 등), 무대공연(난타, 수화, 마술, 연극, 뮤지컬, 퓨전음악 등) 등 공연분야와 더불어 전통놀이, 영상·애니메이션, 미술, 과학·발명, 체험 등 비공연분야 그리고 특별부문(지도자, 동아리)와 자원봉사활동, 사이버기자단 취재대회, 백일장 부문 등 경연이 펼쳐지며, 점차 다양한 부문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경연부문의 대상에는 국무총리상과 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부문별로 각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 주어진다. 시상에는 국무총리상, 교육부장관상, 여성가족부장관상과 각 시·도 교육감상, 시·도지사상, 대학총장상 등 다양한 상 300여개의 상들이 청소년들에게 수여된다.

본 대회는 청소년은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관람 및 참여가 가능하고 참가비는 무료다.

이번 경진대회는 다양한 청소년 동아리들의 폭넓은 교류와 자신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경연의 장



제16회 대한민국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를 11월 12일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전북대학교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게 된다.

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동아리 상호간 새로운 청소년문화를 창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근 기자

고창 판소리부문 동리대상 '정순임 명창' 선정 영예

고창 제26회 판소리 부문 최고 권위의 상으로 불리는 '제26회 동리대상'에 정순임 명창이 선정됐다.



13일 (사)동리문화사업회에 따르면 '제26회 동리대상 수상자 선정 심의회'를 개최하고 정명창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순임 명창은 1942년 2월 5일생으로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34호 판소리 흥부가 보유자다. 정명창의 집안은 구한말 장판계 명창과 그의 아들 장영찬 장수향 조카 딸 장월중순으로 이어져 그의 딸 정순임, 정경옥으로 이어지는 판소리 명가로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악 명문가 발굴 지원 정책에 따라 전통예술 판소리 명가 제1호로 지정하여 판소리 전승보존에 애쓰도록 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선조들의 얼과 숨결 담긴 작품 '우리 곁에'

한국고미술협회 전북 고미술품전

(사)한국고미술협회 전북지회는 선조들의 얼과 숨결이 담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고미술전을 개최한다.

오는 14~23일 전주미술관 전관에서 열리는 '제1회 한국고미술협회 전북지회전'에는 전북지회 회원들이 수집하고 소장하고 있는 고미술품과 민속시료 등 500여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전시에는 격조와 운치를 갖춘 도자기·회화·서예·목공예·금속공예·민예품 등 다양한 시대를 아우르는 회원들의 작품작을 선보여 한국고미술품의 진면목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시에서 관심을 끄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금동여래입상>, <철제산책량자>, <의상대사진영>, <백자청화철화문주자>, <주철부자의걸이장>과 조선후기 문예부흥의 선구자로 동국진체를 완성한 서예의 대가 원교 이광사의 <복서 10폭 병풍> 등이 있다.

또한 한국의 모네이자 빛의 작가로 불리는 오지호(1905~1982)화백의 <동북근교와 춘방 김영(1837~?)의 <산수도 10폭 병풍>도 만나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장가, 수집가, 애호가들이 고미술품으로 소통하고 교감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전시 마지막 날인 23일 오후 4시에는 현장경매 이벤트가 진행된다.

(사)한국고미술협회 전북지회 김완기 회



고미술전에 나온 작품작

장은 "한국고미술품의 소중함을 알리고 싶다. 이번 전시를 통해 회원들과 애호가들의 교류의 장이 확대돼 활발하고 정직한 고미술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물론 고미술에 대한 인프라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232-8886. /정해은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한국전통문화전당, 한문화 체험전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전당 방문객과 한옥 마을 관광객 등 전주를 찾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전시체험이 가능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인 '한문화 체험전'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한국전통문화 홍보관의 한문화인 한옥·한지·한국음악·한글·한식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 행사는 10월 15~16, 22~23, 29일과 11월 5일 오전10~오후 5시 전당 홍보관에서 열린다.

행사를 위해 한국전통문화 홍보관에 다양한 전통의상과 소품을 비치했으며, 의복을 입고 각각의 테마가 있는 배경 속 공간

에서 과거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도록 포토존을 꾸몄다.

이에 앞서 열린 행사에 참여했던 한 방문객은 "아이들과 함께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인 것 같다"며 "실외가 아닌 실내에서 진행되는 체험이라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한옥과 전통관련 전시까지 함께 즐길 수 있어 정말 편하게 놀다간다"고 말했다.

다양한 연령층이 같은 공간, 한 장소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한문화 체험전은 무료로 진행된다.

문의는 063)281-1523.

/정해은기자



구두댕이 소년들이 선사하는 '행복'

전주박물관, 댕스 뮤지컬 '마법의 구두댕이' 선보

국립전주박물관은 대사·노래 없이 오직 춤사위뿐만 관객들과 소통하는 매력수블랙 '마법의 구두댕이' 공연을 오는 15일 오후 6시 국립전주박물관 강당에서 공연한다.

공연은 최근 대세인 크로스오버와 새로운 스타일의 안무로 구성된다. 무대에선 발레를 비롯해 한국무용·현대무용·재즈댄스·힙합·K-POP댄스·비보이·살사 등 장르의 춤을 접목시킨 댕스플라보레이션을 관람할 수 있다.

매직수블랙은 평범한 7인의 남녀가 각각의 삶속에서 '구두댕이 소년'을 통해 행복을 찾는다는 이야기다. 작품은 총 2장면으로, 무료한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행복한 구두댕이가 나타나 구두를 댕아춤으로 행복해진다는 내용과 한 소녀가 바람둥이에게 버림받고 실의에 빠져 슬퍼하고 있을 때 마법의 구두댕이가 나타나 신발을 댕아 주고 다시금 웃음을 찾게 해준다는 이야기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관객들에게 익숙한 음악을 삽입해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은 무료이며, 문의는 220-1013. /정해은 기자

가을밤, 고창예술제의 향기로 '흠뻑'

고창예술인들이 펼치는 제14회 고창예술제가 깊어가는 가을밤을 예술의 향기로 물들이고 있다. 제 14회 고창예술제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15일까지 고창문화의전당 등에서 6일간 개최되고 있다.

예술제 기간 중 지난 12일 저녁 르네상스웨딩홀에서는 '고창예술인의 밤' 행사가 열려 박우정 군수, 최인규 군의장, 장명식·이호근 도의원, 송영래 고창문화원장, 한국예총 박종은 고창지회장, 지역 예술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합의 장이 마련됐다. '고창예술인의 밤' 행사에서 지역 예술 발전을 위해 공헌한 김중환 씨가 고창예술인상을, 오종태씨가 공로상을 수

상했으며 판소리와 시낭송 등 예술인 화합의 장으로 개최됐다.

13일 오후 고창문화의전당에서는 '고창예술제' 행사가 (사)한국예총고창지회(지회장 박종은)주최, 국악, 문인미술, 음악협회 주관으로 지역 예술인들과 700여명의 군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고인돌농악단의 길놀이와 국악예술단 고창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강호오케스트라, 김재근 명창의 판소리, 우쿨렐레·색소폰 연주, 성악, 모악합창단의 합창, 블랙스완의 재즈댄스, 문인협회 회원의 시낭송 공연 등이 선보여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고창=김영식 기자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lab.com/

<2016년 10월 14일>

▷쥐띠
46년생: 지나친 과잉성은 실재를 불러오니 주의하라.
60년생: 손아래 사람으로 인해 근심할 일이 생기니 미리 주의하라.
72년생: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본 후 때를 기다려라.
84년생: 사람들의 만남을 가질 때에는 신중할 태도가 필요하다.

▷소띠
49년생: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마무리 잘 지어야 하는 운.
61년생: 말과 행동에 주의하지 않으면 티인으로부터 망신.
73년생: 중요한 물건을 소중히 간직하라.
85년생: 남매가 따르니 중심을 잡고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라.

▷호랑이띠
50년생: 한 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후에는 역운이 따른다.
62년생: 지나친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무난한 하루가 될 수 있다.
74년생: 무심코 한 말로 인해 큰 파장이 뒤따른다.
86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라.

▷토끼띠
51년생: 걱정거리나 근심거리가 해결될 수 있는 운.
63년생: 천운이 따르는 좋은 운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이길.
75년생: 모든 흉한 일은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나니 주의가 필요하다.
87년생: 급할수록 돌이키는 법이다.

▷용띠
52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이성보다는 동성과 함께 일을 진행하라.
64년생: 공과 시를 구별하지 않으면 구설이 따르는 운.
76년생: 이미 운은 와 있으나 게으름이 발목을 잡는다.
88년생: 지금은 내실을 다지며 노력해야 하는 운이다.

▷뱀띠
53년생: 지평이 있는 사람은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여라.
65년생: 감정의 기복을 조절하고 동요하지 말아야 한다.
77년생: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자 크게 도움 되는 것은 없다.
89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자주 막힘이 생기는 운.

▷말띠
54년생: 정신이 산만하니 집중하기 어려운 운이다.
66년생: 시비수가 따르니 자신과 적대적인 사람과 말을 섞지 마라.
78년생: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아지는 운이니 출타는 삼가라.
90년생: 뒷사람에게 능력을 인정받는 운이니 적극적으로 진행.

▷양띠
55년생: 마음이 산만한 운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처리하라.
67년생: 사람들의 모임을 갖거나 식복은 있으나 많은 말은 삼가라.
79년생: 금전적으로 지출이 심해지는 운이니 불필요한 지출 줄여라.
91년생: 뒷사람으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

▷원숭이띠
55년생: 부득이하게 출타할 일이 있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69년생: 손재수가 따르는 운이니 금전권리에 주의.
81년생: 주변사람에게 신경 써야 하는 운이다.
93년생: 이별 때에는 지중하며 때를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다.

▷닭띠
57년생: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하지 말고 옆의 사람을 배려하라.
69년생: 지나친 고집은 불화의 원인이 되니 양보와 타협하라.
81년생: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지 않으니 객관적으로 판단하라.
93년생: 출행하면 다치거나 아플 수 있으니 행방은 삼가라.

▷개띠
48년생: 다른 사람들의 불화가 생기는 운이다.
60년생: 일이 무겁지 않으면 곤란한 일을 겪게 된다.
72년생: 문서를 주고받기에는 좋으나 그 외의 일은 불리하다.
84년생: 바빠 마른 땅에 비가 내리니 흥분하지 마라.

▷돼지띠
47년생: 손아래 사람으로 인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한다.
59년생: 동기근과 불화가 생기는 운.
71년생: 인덕을 볼 수 없는 운으로 혼자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
83년생: 요행을 바라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가 따르는 운.